

서세동점, 동아시아와 서양 열강 2

7) 영국과 차(茶, tea), 그리고 관세(關稅)

- 영국 상류사회에서 차를 애용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중엽이었는데, 이때는 주로 네덜란드를 통하여 수입.
- 영국 동인도회사가 광둥 무역에 참가하면서 영국 내 차의 판매가격이 대폭 인하. 18세기 초부터 국내 차 소비가 크게 증가하였다.
-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차에 대한 관세는 정부의 중요한 재원이었다.
- 영국 정부는 해외 팽창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차 관세를 대폭 인상. 그러나 이는 국민 의 반세(反稅) 감정을 증폭, 대규모의 차의 밀수입을 초래하였다. 또, 차에 대한 높은 관세에 반대하여 일어난 북미 식민지의 반세운동이 독립운동으로 발전, 북미 식민지를 상실하게 되었다.
- 영국은 1784년 과감한 감세(減稅) 정책을 시행, 19세기 초 중국에서 유럽으로 수출되는 차의 90% 이상을 영국이 취급하게 되었다. 그러나 이 같은 성공은 증가하는 차 수입에 필요한 자금조달 문제를 초래.
- 은화에 의한 현금결제 - 매년 막대한 은화가 중국으로 흘러 들어갔고 서방 무역국들은 이에 필요한 은화의 조달에 고심하였다.
- 은화 조달 문제의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아편무역.

8) 아편전쟁

- 중국은 아편무역으로 막대한 경제적·사회적 타격을 입게 되었다.
- 1838년 도광황제는 임칙서를 흠차대신(欽差大臣)에 임명하여 즉각 광둥으로 가서 아편 문제를 처리하라고 명령.
- 1839년 7월 7일 구룡(九龍)에서 술에 취한 영국 선원들이 임유희(林維喜)라는 중국 농민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 --> 임칙서는 8월에 무력으로 마카오를 봉쇄하고 식량과 연료 공급을 중단 --> 11월 영국 함선과 중국 함선 간에 포격전 발발
- 1840년 6월 영국군 광둥항 봉쇄, 다음 해 6월 상해 점령.

9) 남경조약(난징조약) 체결

- 광주(廣州), 하문(廈門), 복주(福州), 영파(寧波), 상해(上海) 5항을 개방한다.
- 공행(公行)의 무역 독점을 폐지한다.
- 공평하고 정규적인 수출입 관세를 설정 공포한다.
- 개방되는 5항에 영국영사를 상주시킨다.
- 중영 양국 관헌은 대등한 입장에서 문서를 교환한다.
- 홍콩을 영구히 영국에 할양한다.
- 관세율은 쌍방의 협정에 의하여 결정되되 증가(從價) 5%를 원칙으로 한다.
- 개방되는 5항에 있는 영국인에 대하여는 영국 영사관이 재판권을 행사한다.
- 중국은 영국에 대하여 최혜국대우(最惠國待遇)를 부여한다.
- 영국은 개방되는 5항에 군함 1척을 상시로 정박시킬 수 있다.
- 남경조약은 물론 승전국인 영국이 패배한 중국에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.
- 서방 열강이 동아시아 제국에 강요한 ‘불평등조약’의 효시, 동아시아 국가의 주권을 침범하고 경제적

으로 약탈하는데 사용된 모든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.

- 아편전쟁은 중국인들이 주도하는 동아시아적 세계질서와 영국인들이 대표한 서구식 국제질서간의 충돌로 일어난 전쟁이었다.
- 아편전쟁은 중국통치자들의 전통적인 ‘무역은전론(貿易恩典論)’과 영국 지도자들의 근대적인 ‘자유무역론(自由貿易論)’간의 차이에서 기인한 충돌이었다.

10) 에로우 전쟁과 천진조약(톈진조약)

- 남경조약의 체결이 가져온 근본적인 변혁에도 불구하고, 청조는 이것이 당면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일시적 편법이라고 생각. 새로운 조약의 제도를 광둥무역제도의 연장 또는 확대로 간주하여 전통적 조공체제 테두리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.
 - ex) 남경조약 체결 후 8년이 지났음에도 북경당국은 영국사절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고 과거와 다름없이 모든 교섭을 계속 지방관인 광둥총독과 양강총독 관할 하에 두었다.
- 에로우호(Arrow號) 사건
 - 1856년 10월 8일 중국관헌이 광둥항에 정박하고 있는 홍콩선적의 중국 화물선 에로우호의 선원 12명을 해적혐의로 체포
 - 영국측의 항의, 그러나 양광총독은 에로우호는 영국국기를 게양하고 있지 않았으며 에로우호의 선장은 영국인이었으나 선주와 선원은 모두 중국인이라고 반박.
 - 에로우호의 홍콩선적등록은 이미 기한이 지나서 무효인 상태였음.
 - 10월 22일 영국군이 광주시를 공격
 - 영국군과 프랑스군 공동출병, 조약을 개정할 목적으로 미국과 러시아 대표들도 합류
- 천진조약
 - 제약국의 외교사절은 가족을 동반하고 북경(北京)에 상주 또는 수시로 왕래하여 청조의 내각대학사 또는 그와 동등한 대관들과 대등하게 접촉하며,
 - 이미 개방된 5항(港) 이외에 우장(牛莊)·등주(登州)·한구(漢口)·구강(九江)·진강(鎮江) 등의 항구를 추가로 개방하고,
 - 제약국 국민은 각기 자국영사가 발급하고 중국관헌이 인준한 여권을 가지고 중국 내지를 여행할 수 있다.
 - 중국인의 신앙의 자유와 외국인의 선교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,
 - 중국인의 해외도항을 공식으로 인정한다.
 - 청조는 모든 공문서에서 외국인에 대하여 ‘夷’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을 것
 - 외국인 세무사를 모든 개항장에 설치한다.
 - 청조는 영국에 400만 냥, 프랑스에 200만 냥의 배상금을 지불할 것, 배상금 지불이 완료될 때까지 영불 양국이 천진·등주·대고·광주에 군대를 주둔시킨다.
- 천진조약의 조인으로 아편전쟁 후 남경조약(1842)에 의해 성립된 조약체제가 20년에 가까운 세월에 걸쳐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다음 확립되었다.
- 전통적인 중국의 조공-책봉체제는 완전히 사라진 반면, 열강이 힘으로 강요한 불평등조약체제가 확립.